

기고

이형석 무안경찰서 경무계장



방학 없는 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면상희(面相喜)라는 사자 성어가 있다. 언뜻의 모양은 등글고 원만하여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온화해지고 즐거워진다는 뜻으로 무안은 언뜻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여름 경치가 돋보이는 시기이다. 초·중·고등학교들도 방학이 시작되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이 부족한 공부를 더 하거나 가족·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가 되었다. 이처럼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행복

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사이버 학교폭력이 등장하여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SNS,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피해자가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내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이 크다. 주요 유형으로는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에서 각종 욕설이나 괴롭

힘 등을 자행하는 '떼까', 대화방으로 초대해 괴롭힌 뒤 피해자를 남기고 한꺼번에 퇴장하는 '방폭', 친구를 흉보는 글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떼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카톡감옥, 플레이밍, 기프티콘 서블, 이모티콘 서블, WiFi 서블, 안티카페 등 수많은 방식이 생겨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이버상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는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별도로 두어, 학교 별로 매 학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주력하고 있다. 또,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나 선생님과 함께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117신고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도움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외면하지 말고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친구들의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 추억이란, 양쪽 모두에게 아름답고 좋은 기억이 남았을 때 좋은 추억이라 부를 수 있다. 단지 재미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 밝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社說

바람직한 건축법 시행령

앞으로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니 만사지탄의 감이 없진 않지만 이를 반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물에는 층수나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 대상 건물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넓어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까다롭게 고쳤다. 우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모두 화재에 잘 견디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불이 빠르게 전체 건물에 번지지 않도록 건물 내 공간에 방화문 등을 통해 나누는 '방화 구획' 설정 의무가 지금까지는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됐으나, 모든 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화재에 취약했던 시설들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눈병 관리 주의 생활화 해야

무더운 여름철에 야외 물놀이 등 바닷가나 강가에서 피서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여름철 물놀이 중 눈부위가 노출되어 전염병이 우려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하여 눈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사지를 제외하고서 가장 노출이 많은 부분이 눈(안구)이다. 눈은 우리에게 사물을 보여주고 인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눈에 이물질 등 손상을 입었을 때 행할 수 있는 처치 요령을 알아보자. 눈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총혈 및 과도한 눈물 분비되며 심하면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염수를 이용해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척해주며 면봉을 식염수를 적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시 무리한 행위는 결막, 각막표면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눈부위에 둔상(둔탁한 물체에 부딪힘)을 입었을 때는 통증을 동반하며 충혈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력감소

및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둔상시에 소독 거즈로 양쪽 눈을 가려 안구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며 눈의 압력을 최소화 하며 반좌위(편안 앉은 자세)로 이송해야 한다. 얼음찜질시 손상부위의 혈관이 축소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며 붓대로 감아 지압하지 않아야 한다. 눈부위에 열상(베인상)을 입었을 때는 압박혈을 하면 안되며 이물질 제거시는 각막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압력에 의해 손상부위가 더 커질 수 있다. 눈부위 화상시는 손상받은 쪽으로 눈을 20분정도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며 눈을 감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눈꺼풀을 들지 말고 세척 해주어야 한다. 빛화상시는 눈속에 모래가 있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응급의료시스템에 신고 후 환자의 상태를 전달해주는 것이 최선의 처치 요령이라 할 수 있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과 바다로 향하는 휴가철이다. 하지만 신나고 즐거운 휴가가 크고 작은 사고로 엉망이 되거나 돌아갈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안전'은 행복한 휴가의 '필요조건'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는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여 물놀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경련 또는 근육통을 예방하도록 하자. 아주 차가운 물 속에 갑자기 뛰어 들면 우리 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혈관과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 결과로 의도치 않는 근육경련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장시간 수영하거나 물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다. 저체온증은 자체로 아주 위험한 사망 요인이다. 둘째는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여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장시간 수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파도와 조류가 있는 바다에서는 더욱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이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이 음주수영도 물놀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에 관계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콜은 전두엽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음주는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억제한다. 음주수영은 자기 체력에 대한 과신, 주위 환경에 대한 오만, 운동능력의 통제력 상실을 불러온다.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 대처법을 알아보자. 우선은 물에 뛰어 들지 말고 119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 후 주위에 있는 끈이나 페트병 등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조하여야 한다. 요구조자를 구조한 후에는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Honor'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empathy.